

KORMARC 통합서지용 개정을 위한 기초연구*

A Preliminary Study for Revision of KORMARC Bibliographic Format

노 지 현 (Jee-Hyun Rho)**

이 미 화 (Mihwa Lee)***

〈 목 차 〉

| | |
|------------------------------|--------------------------|
| I. 서론 | V. KORMARC의 주요 쟁점 사항 |
| II. KORMARC 개정에 대한 실무진 의견 분석 | VI. KORMARC 통합서지용의 개정(안) |
| III. KORMARC 적용을 위한 업무지침 분석 | VII. 결론 |
| IV. KORMARC과 MARC21 형식 비교 | |

요약: 이 연구는 『KORMARC 통합서지용』(2014)에 대한 개정(안)의 도출을 위한 기초연구이다.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5-2021년에 국립중앙도서관에 접수된 『KORMARC 통합서지용』의 문제점과 개정에 대한 실무진의 의견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KORMARC 적용과 관련된 기관별 업무지침을 분석하여 KORMARC 개정에 반영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셋째, MARC21의 Update No. 32(June 2021)와 『KORMARC 통합서지용』을 비교하여 KORMARC 개정에 반영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제기해 왔거나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쟁점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KORMARC 필드·식별 기호·지시기호의 추가와 삭제, 적용지침과 예시의 보완, 부록 및 부속서(부호표)의 개정을 포함하는 개정 초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과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과 실무진의 검토, 공청회를 통한 도서관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주제어: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서지레코드, 서지데이터, KORMARC, 서지형식, 서지데이터용 포맷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revised draft of KORMARC bibliographic format that was first revised in 2014. To this end,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methods are as follows. First, the opinions of cataloging working groups for revision of KORMARC including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NLK) and KERI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Second, work guidelines used in libraries or cooperative catalog systems were analyzed. Third, by comparing MARC21 update No.32 (June 2021) with the KORMARC bibliographic format, elements that need to be reflected in the KORMARC revision were derived. Finally, issues that have been raised in previous studies or that require further discussion were examined.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an outlines of the extension and deletion of KORMARC fields, subfields, and indicators, and supplementation of application guidelines and examples were derived. The final revision directions were finalized after collecting expert opinions, the working group reviews, and comprehensive opinions from the library community.

KEYWORDS: Korean Machine Readable Cataloging Format, KORMARC, Bibliographic Records, Bibliographic Data, Bibliographic Format

* 이 연구는 2021년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KORMARC) - 통합서지용, 전거통제용 개정(안) 연구』의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학술논문으로 발전시킨 것임.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hrho@pusan.ac.kr / ISNI 0000 0004 6484 8385) (제1저자)

*** 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과 교수 및 학교도서관연구소 위원
(leemh@kongju.ac.kr / ISNI 0000 0004 6431 3495) (교신저자)

• 논문접수: 2022년 2월 23일 • 최초심사: 2022년 2월 28일 • 게재확정: 2022년 3월 11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3(1), 149-170, 2022. <http://dx.doi.org/10.16981/kliss.53.1.202203.149>

* Copyright © 2022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I. 서론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이하 KORMARC)은 서지정보의 구축 및 교환을 위한 인코딩 포맷이다. 수록되는 데이터의 특성과 사용 목적에 따라 KORMARC은 서지데이터용, 전거통제용, 소장정보용 형식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가운데, 서지데이터용 KORMARC은 1980년대부터 2000년까지 단행본, 고서,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를 위한 형식이 순차적으로 개발되었고, 2005년에 자료유형별로 분리되어 있던 기존의 형식을 통합하여 『KORMARC 통합서지용』을 제정하였다. 이후 2014년 개정을 거쳐 현재의 『KORMARC 통합서지용』(KS X 6006-0, 2014)을 국내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KORMARC 통합서지용』은 2014년 개정 이후 이미 7년 이상 경과되어 재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MARC21이 1999년 개발 이후 2021년까지 총 33회의 개정(update)이 이루어진 점과 비교해 볼 때, 『KORMARC 통합서지용』의 개정 검토는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으나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도서관 현장에서는 현재의 『KORMARC 통합서지용』에 포함된 내용적 오류나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 혹은 실무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여왔다. 또한, KORMARC 통합서지용과 전거통제용, 소장정보용이 각기 다른 시기에 제정 혹은 개정되어 각 형식 간에 동일한 내용의 불일치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었다. 여기에, 최근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목록 동향을 KORMARC에 수용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도 개정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KORMARC 통합서지용』의 전면적 개정을 위한 검토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는 링크드 데이터 형식으로서의 변환을 전제로 한 MARC 개정 논의이다. 링크드 데이터를 지향하는 개념모형인 LRM이 개발되고, 이 개념모형은 기술규칙과 데이터 인코딩 포맷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MARC를 대체하는 BIBFRAME으로 완전히 전환되기 전까지 링크드 데이터 형식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내용을 MARC에 수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KORMARC 통합서지용』의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첫 번째 검토의 목적이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데 있다면, 두 번째는 실무 적용을 바탕으로 하는 미시적이고 경험적 성격을 가진다. 이번 연구에서 집중할 부분은 두 번째, 즉 도서관 현장의 의견을 검토하여 『KORMARC 통합서지용』의 개정에 반영할 사항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무 현장에서 제기해 온 『KORMARC 통합서지용』의 문제점과 개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실무진 의견은 『KORMARC 통합서지용』 개정 직후인 2015년부터 2021년 5월까지 국립중앙도서관에 접수된 의견을 모두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KORMARC 적용과 관련된 기관별 업무지침을 분석하여 KORMARC 개정에 반영할 사항을 추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지침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과의 목록지침과 KERIS의 종합목록 입력지침이다. 국내에서는 이 두 지침이 가장 광범위하고 상세할 뿐만 아니라 대표성을 지닌다고 판단되어 이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셋째, MARC21의 Update No. 32(June 2021)와 『KORMARC

통합서지용』을 비교하여 KORMARC 개정에 반영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KORMARC와 MARC21 간 데이터 공유나 교환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두 형식의 차이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관련 연구에서 제기해 왔거나 연구팀에서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쟁점을 따로 정리하여 개정 사항을 도출하였다. 각 단계별로 정리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후 KORMARC 표시기호·식별기호·지시기호의 추가와 삭제, 적용지침과 예시의 보완, 부록 및 부속서(부호표)의 개정을 포함하는 개정 초안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 의견 수렴과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과 실무진의 검토, 공청회를 통한 도서관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 연구와 관련된 연구로는 RDA 저작 및 표현형 요소 수용을 위한 KORMARC 필드의 신설을 제안한 연구(이미화, 2010), KORMARC 통합서지용의 표제 필드 입력형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한 연구(이경호, 2009; 2014; 이경호, 김정현, 2006)가 있다. 또한, KORMARC 전거통제용(노지현, 이미화, 2014)과 소장정보용(노지현, 이은주, 2018)의 개정 방안을 다룬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KORMARC 통합서지용의 재개정을 목적으로 세부 내용을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며, 특히 KORMARC 적용과정에서 발견되는 실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II. KORMARC 개정에 대한 실무진 의견 분석

2014년 『KORMARC 통합서지용』의 개정 이후에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과에서 수시로 접수한 국내 도서관 실무진의 의견(KERIS 표준화분과위원회 의견 포함) 및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과의 자체 의견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의견은 중복을 제외하고 총 537건이었다. 이를 세부 유형별로 정리하면 <표 1>과 같이 (1) 신설 및 추가, (2) 삭제, (3) 수정, (4) 재검토 요청 의견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형별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KORMARC 통합서지용에 대한 개정 의견

| 유형 | | 사례 수(건) | 비율(%) |
|---------------------------|-----------------|---------|-------|
| 신설 및 추가 (필드/식별기호, 예시, 설명) | | 97 | 18.1 |
| 삭제 (부적절한 예시 및 설명) | | 6 | 1.1 |
| 수정 | 용어 수정 | 162 | 77.5 |
| | 설명 수정 및 보완 | 137 | |
| | 오류 수정(오타, 누락 등) | 88 | |
| | 기타 (예시 수정 등) | 29 | |
| 재검토 요청 | | 18 | 3.3 |
| 계 | | 537 | 100.0 |

먼저, 신설 및 추가에 대한 의견은 ① 필드나 식별기호의 신설(34건), ② 예시 추가나 누락된 예시의 보완(61건), ③ 리더부와 제어필드에 영문명칭 병기 요청(1건), ④ 적용지침의 설명 추가(1건)로 구분되었다. 필드나 식별기호의 신설은 MARC21에는 있으나 KORMARC에 존재하지 않는 필드나 식별기호에 대한 요구로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2014년 KORMARC 통합서지용 개정 이후에 MARC21에 신설된 필드나 식별기호도 있지만 그 전부터 MARC21에 존재한 것으로 2014년 개정시 반영되지 않은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신설을 요구한 필드를 제시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KORMARC 필드 신설 검토 의견

| 2014년 KORMARC 개정시 누락된 필드 | 2014년 이후 MARC21 신설 필드 |
|--|--|
| 363 (Normalized Date and Sequential Designation) | 251 (Version Information) |
| 365 (Trade Price) | 335 (Extension Plan) |
| 366 (Trade Availability Information) | 341 (Accessibility Content) |
| 370 (Associated Place) | 348 (Notated Music Characteristics) |
| 385 (Audience Characteristics) | 532 (Accessibility Note) |
| 386 (Creator/Contributor Characteristics) | 881 (Manifestation Statements) |
| 388 (Time Period of Creation) | 884 (Description Conversion Information) |
| 647 (Subject Added Entry - Named Event) | 885 (Matching Information) |
| 882 (Replacement Record Information) | |
| 883 (Metadata Provenance) | |

신설 및 추가에 대한 의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예시’와 관련된 것이었다. 082 필드의 ▼m과 ▼q, 246 필드의 ▼g, 505 필드의 ▼g, 552 필드의 ▼d 등 일부 식별기호에 예시가 누락되어 있어, KORMARC 적용과정에서 실무에 참고할 예시를 보완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예시가 있지만 보다 다양한 유형의 예시를 추가해 줄 것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가령, 245 필드의 ▼a(본표제)에 동일 저자의 개별표제가 4개 이상인 경우, 종합표제 없이 저자가 각기 다른 상이한 저작이 4개 이상인 경우 등 다양한 사례를 포함하되, 관련 필드(505, 7XX 필드 등)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예시 추가에 대한 의견 중에는 최신 사례나 온라인자료 등 다양한 매체에 대한 예시를 추가할 것에 대한 의견이 많은 편이었다.

다음으로,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설명의 삭제 요청 의견이 있었다. 삭제 요청으로 간주된 의견은 다음 <표 3>과 같이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설명 중복, 부적절한 예시 등이었다.

<표 3> KORMARC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설명의 사례

| 사례 구분 | 해당 사례 |
|---------|---|
| 의미 불명확 | 리더/17(입력수준)=2(중간수준) “... 전거를 거친 표목이지만 통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
| 중복 설명 | 008(공통)/15-17(발행국명) “3자리의 채움문자(III)는 유효한 후호를 대신해서 사용될 수 있으나 008/15-17 자리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 이 자리에는 채움문자(III)를 사용하지 않는다” |
| 부적절한 예시 | 008(계속자료)/33(표제의 언어) = d(일본어) 222 00 ▼a日本科學雜誌 245 00 ▼a日本科學雜誌 [222 필드의 적용은 잘못된 예시임. 222 필드 삭제] |

한편, 실무진 의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적절한 용어나 설명의 수정, 단순 오류의 수정 등과 같은 '수정'에 대한 요구였다(전체의 77.5%(416건)).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례로, 용어와 관련하여서는 영문표기 통일(예: Disk, Disc → Disc), 외래어 표기법 수정(예: 아파츨어 카드, 아파츨어 카드 → 애펌쳐 카드), 번역오류 수정(예: 체크 디지털 → 체크 기호)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적용지침에 열거된 설명의 수정에 대한 의견은 대부분 번역어투의 설명을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지만, 전자통제용 및 소장정보용 KORMARC에 동일 필드가 있는 경우 설명의 통일성을 유지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 외 오타나 구분기호 오류, 식별기호 누락, 구두점 누락과 같은 오류 수정이나 적용된 예시의 수정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수정 요청 의견 중 대표적 사례를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표 4> KORMARC 수정요청 사례

| 사례 구분 | 해당 사례 | 수정 요청사항 |
|-------|---|---|
| 용어 수정 | 007(악보) / 00(자료범주표시) 음악적인 총보 및 일부 악보 | 총보 및 파트보 |
| | 008(시청각자료) / 33(시청각자료의 유형) 마이크로소프트 슬라이드 | 현미경 표본 |
| | 024(기타 표준부호) 국제표준녹음자료부호 체크 디지털 10자리 평행선 | 국제표준녹음부호 체크 기호 10자리 바코드 |
| | 270(자료관련주소) ▼z 공개여부 주기 | ▼z 이용사용 주기 |
| 설명 수정 | 리더/06(레코드 유형) = a(문자자료) "부호 a는 원본을 복제하였거나 혹은 원래 그렇게 제작된 것인지는 관계없이 원본이 문자로 된 자료를 마이크로자료나 전자자료로 제작한 자료에도 적용한다." | "복제여부와 상관없이 자료의 내용이 문자로 된 것이면 부호 a를 적용한다. 이는 마이크로자료나 전자자료로 제작한 자료에도 적용한다." |
| | 540(이용과 복제 제한에 관한 주기) | 소장정보용 KORMARC의 845(이용 및 복제에 관한 주기) 필드의 정의와 범위 등 설명 통일성 유지 |
| 오류 수정 | 008 / 24(전자자료) 미정의(006/06-07) [자리위치 오류] | 미정의(006/07) |
| | 506 00▼a제한: 이용허가서 필요 [식별기호 누락] | 506 00▼a제한: ▼c이용허가서 필요 |
| | 775(이판저록) 제2지시기호 0 - 이용가능한 다른 판 (Other edition available) [오타] | (Other edition available) |
| | 260(발행, 배포, 간사사항) ▼a[Philadelphia] : ▼bUnited States Pharmacopoeial Convention : ▼a[s.l.] : ▼bDistributed by Mack Pub. Co., ▼c1980- [두 번째 ▼a 앞 구두점 오류] | 260 00▼a[Philadelphia] : ▼bUnited States Pharmacopoeial Convention : ▼a[s.l.] : ▼bDistributed by Mack Pub. Co., ▼c1980- |
| | 020(국제표준도서번호) 020 ▼a8936433189 (상) ▼g03810 : ▼c#55000 [▼c 콜론(:) 앞 띄어쓰기 오류] | 020 ▼a8936433189 (상) ▼g03810 : ▼c#55000 |
| 예시 수정 | 540(입수처 주기) ▼d1981/09/24 [예시의 날짜 형식 수정] | ▼d19810924 |
| | 949(로컬표목-총서표제) 440 00▼aMozart 서거 200주년 기념음악회 : ▼v2 949 00▼a모짜르트 서거 이백주년 기념음악회 : ▼v2 [예시의 440 필드는 폐지되었음] | 예시 중 440 필드 수정 |

마지막으로, KORMARC 통합서지용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이와 관련된 의견으로는 데이터의 구조화를 위해 별도 식별기호의 신설, 필드나 식별기호의 적용 방식(반복 또는 반복불가) 변경, 목록규칙과 관련하여 특정 필드의 사용 가능 여부 등을 재검토해 달라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KORMARC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일부)

| 해당 필드 | 검토 요청 의견 |
|--|---|
| 020(ISBN), 024(기타 표준부호), 027(표준기술 보고서번호) 필드 등 | 표준번호와 관련된 부가적 설명 정보의 처리 - 현재 식별기호 ▼a 뒤에 원괄호로 묶어 기술하나, 별도의 식별기호로 구분이 필요한지 검토 필요 |
| 043(지역부호), 250(판사항), 243(중합통일표제) 필드의 ▼s, 538(기금정보 주기) 필드의 ▼5 | 필드나 식별기호의 적용 방식(반복, 반복불가)의 변경 검토 필요 |
| 240(통일표제), 243(중합통일표제) 필드 | 다음 설명의 적절성 검토 - “개인명(100필드), 단체명(110필드) 또는 회의명(111필드) 아래 기입되는 서지레코드일 경우 적용한다.” [KCR4를 사용하는 경우 240, 243 필드의 적용이 불가한지 검토] |

III. KORMARC 적용을 위한 업무지침 분석

실무진 의견에 이어, 편목업무에 사용하는 업무지침을 분석하여 KORMARC 통합서지용 개정에 반영할 사항을 추출하였다. 업무지침은 KORMARC 표준을 보완하여 설명하거나 적용방식을 한정하는 사례를 포함하고 있어 개정에 반영할 내용을 지침에서 찾기 위함이었다. 이 연구에서 사례로 선정하여 분석한 지침은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서지과 목록지침」(2020. 10 기준)과 KERIS의 「통합서지용 KORMARC 반영 종합목록 입력지침(전체본)」(http://unicat.riss.kr/cmrc_guideline/main.jsp) 및 「자료유형별 입력지침 요약 및 예시」(http://unicat.riss.kr/matttype_guideline/main.jsp) 이었다.

먼저,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서지과 목록지침」을 분석한 결과, 주요 내용은 ① 업무참고용과 ② KORMARC 개정에 반영할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업무참고용은 주로 데이터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방법이나 표기법을 지정하거나 KCR4 또는 KORMARC 통합서지용의 적용 사례를 강조하여 지침에 수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침에 수록된 내용 대부분이 이 유형에 해당하였으며, 이는 「KORMARC 통합서지용」의 개정에 직접적으로 반영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최종 판단되었다. 관련 내용의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서지과 목록지침」의 일부

| 구분 | 지침 내용 |
|--|---|
| 008/38-39 (한국정부기관부호) | <p>발행사항 정보원에 대학 명칭이 기술되지 않은 경우에도 대학소속기관임이 확인이 된다면 대학에서 간행된 것으로 보아 한국대학부호를 기술한다.</p> <p>예) ○○○대학교, ○○○대학교 ~과, ○○○대학교 도서관, ○○○대학교 박물관, ○○○대학교 출판부, ○○○대학교 위원회, ○○○대학교 병원 (대학소속) ~연구소 등</p> <p>단, 대학명칭을 사용하였으나 대학과는 무관하게 개인·친목단체의 출판물, 단순히 영리목적으로 명문대 이름을 차용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p> |
| 245(표제와 책임표시 사항) 필드의 두 번째 이하 ▼a(본표제)의 부출 | <p>중합표제나 대표표제가 없는 합집으로 본표제가 245필드에서 반복될 경우, 두 번째 이하 ▼a(본표제)는 740필드에 부출한다.</p> <p>- 두 번째 이하 표제에 관사나 관계가 있는 경우, 245필드에는 자료에 표기된 대로 관사와 관계를 포함하여 기술, 7XX필드는 관사와 관계 삭제 후 기술한다.</p> <p>예) 245 00 ▼a햄릿 : ▼a오델로 : ▼a리어 왕 : ▼a맥베드 / ▼d셰익스피어 740 02 ▼a오델로 740 02 ▼a리어 왕 740 02 ▼a맥베드</p> <p>※ 관사 245 00 ▼aQuark models : ▼aAn accelerator design study / ▼dJ. Rosner 740 02 ▼aAccelerator design study</p> <p>관계 245 00 ▼a랍비 : ▼a어린이를 위한 탈무드 740 02 ▼a탈무드</p> |
| 500(일반주기), 525(부록주기) | <p>단행본의 부록은 525 필드를 사용하지 않고, 500 필드에 기술한다. 제목의 구분은 245 필드의 구두점을 활용하여 제목 간 쌍반점(:)으로 구분하되 부록 3개까지는 기술하고 4개 이상인 경우는 '등'으로 기술한다.</p> <p>예) 500 bB ▼a권말부록: IMVP 후원기관 명단 : 전화번호, IMVP 연구진 명단 : 중소기업인 명부 500 bB ▼a권말부록: 운영진 주소록 등</p> |
| 502(학위논문주기) | <p>학위논문의 지도교수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p> <p>예) 500 bB ▼a지도교수: 김수현 900 10 ▼a김수현</p> <p>학위논문의 종류(▼a)와 학위 수여기관(▼b) 사이의 구두점이 KCR4에는 "--", 통합마크에는 "---"로 되어 있으나 통합마크에 따라 "---"로 통일하여 적용한다.</p> <p>복수학위제를 통해 양 대학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해당 논문에 두 대학에 대한 정보가 모두 표시되어 있다면 모두 유효한 접근점이 될 수 있으므로 반복하여 이를 모두 기술한다.</p> <p>- 502필드 반복 기술 시 논문에 표시된 발행사항의 기재순서에 따라 기술한다.</p> <p>예) 논문에 국내 대학이 먼저 기술되어 있는 경우 502 0B ▼a학위논문(석사) -- ▼b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c국어국문학과, ▼d2016 502 0B ▼a학위논문(석사) -- ▼b延边大学, ▼c亚非语言文学, ▼d2016</p> |

한편, 국립중앙도서관 목록지침에서 「KORMARC 통합서지용」과 다르게 적용하도록 명시한 부분이 일부 발견되었다(〈표 7〉 참조). 이는 KCR4 기술규칙과 KORMARC 적용지침 간의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이거나 실무 적용과 관련된 내용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KORMARC 개정 시 구체적인 검토 후 적용지침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 판단된다.

〈표 7〉 KORMARC 통합서지용과 국립중앙도서관 목록지침의 차이 분석

| 구분 | KORMARC 통합서지용 | 국립중앙도서관 목록지침 |
|----------------|---|--|
| 245 ▼h 자료 유형표시 | <p>자료유형표시(매체)는 표제(▼a, ▼n, ▼p) 다음에 위치하고, 표제관련정보(▼b), 종합표제가 없는 경우 두 번째 표제(▼a), 책임표시(▼d) 앞에 위치한다. ※ 자료유형표시의 위치 - 표제(▼a, ▼n, ▼p)의 다음 - 표제관련정보(▼b), 대등표제(▼x), 첫 번째 책임표시(▼d), 종합표제가 없는 경우 두 번째 표제(▼a) 앞</p> <p>245 10▼a본표제, ▼n권차, ▼p권차표제 ▼h[자료유형표시] /▼d책임표시</p> <p>245 10▼a본표제 ▼h[자료유형표시] : ▼b표제관련정보 /▼d책임표시</p> <p>245 10▼a본표제 ▼h[자료유형표시] = ▼x대등표제 /▼d 책임표시</p> <p>245 10▼a첫 번째 표제 ▼h[자료유형표시] : ▼a두 번째 표제 : ▼a세 번째 표제 /▼d책임표시</p> <p>245 10▼a첫 번째 표제 ▼h[자료유형표시] /▼d책임표시, ▼a두 번째 표제 /▼d책임표시</p> <p>245 10▼a표제, 또는 별표제 ▼h[자료유형표시] /▼d책임표시</p> | <p>- 자료유형표시는 ISBD 원칙에 따라 매체표시는 각괄호([])로 묶어 기술하되, 종합표제 대신 개별저작의 표제를 기술할 경우에는 첫 번째 표제 다음에 기재함 - 최근 발행한 한국목록규칙 제4판 보유편에 따라, 자료유형표시(245 ▼h)는 첫 번째 본표제(245 ▼a) 다음에 기술</p> <p>245 ▼a천국의 책방 ▼h[접자자료], ▼n1, ▼p그 사랑을 만나다 /▼d마쓰히사 아쓰시 지음</p> <p>245 ▼a만고강산 ▼h[녹음자료] : ▼a추월강산 /▼d獨唱: 李花中仙</p> |
| 리더/06 레코드 유형 | <p>m - 전자자료 컴퓨터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게임, 폰트 포함), 수치 데이터, 컴퓨터 의존형 멀티미디어, 온라인 시스템이나 서비스가 포함된다. ... 다른 종류의 전자정보는 해당 자료의 주 특성(예: 문자자료, 영사자료, 지도자료, 소리, 음악, 활동영상)에 따라 부호를 부여한다. 주 특성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전자자료로 적용한다.</p> | <p>[V. 전자자료 정리지침] 현재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에서는 리더값의 레코드 유형을 전자자료에 담긴 내용을 기준으로 잡아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예, 음악이 담겨있으면 녹음자료, 전산 프로그램 담겨있으면 전자자료, PDF 파일 등 보고서가 담겨있으면 문자자료), 현재 우리 도서관은 매체 형태를 기준으로 잡아 모든 전자자료의 레코드유형을 전자자료 m (전자자료)으로 입력하고 있음</p> |

다음으로 분석한 KERIS 종합목록 입력지침은 국내 대학도서관들이 편목업무에 공동으로 활용하는 지침이다. 공식 명칭은 『KERIS 종합목록 입력지침: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통합서지용 2014년 개정 반영』이며, 현재의 버전은 KERIS 종합목록 표준화분과위원회에서 2016년 1월에 개정한 것이다. KORMARC 통합서지용 전문에 KERIS에서 준수해야 할 지침(‘[KERIS 지침]’)과 참고해야 할 사항(‘[KERIS 참고]’)을 따로 표시하여 웹에 공개하고 있다. KERIS 종합목록 입력 지침 중에서 KORMARC 통합서지용 개정 시 참고하거나 검토가 필요한 내용만 추출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KORMARC 통합서지용과 KERIS 종합목록 입력지침의 차이 분석(일부)

| 구분 | KORMARC 통합서지용 | KERIS 입력지침 |
|----------------|---|--|
| 리더/06 (레코드 유형) | <p>a - 문자자료 필사되지 않은 문자로 된 자료에 대한 레코드임을 의미한다. 부호 a는 원본을 복제하였거나 혹은 원래 그렇게 제작된 것인지는 관계없이 원본의 문자로 된 자료를 마이크로자료나 전자자료로 제작한 자료에도 적용한다.</p> | <p>a - 문자자료 필사되지 않은 문자로 된 자료에 대한 레코드임을 의미한다. 마이크로자료나 전자자료가 인쇄자료를 복제한 것이든 원래 그렇게 제작된 것이든 그 내용이 문자로 된 것이라면 부호 a 문자자료를 적용한다.</p> |

KORMARC 통합서지용 개정을 위한 기초연구

| 구분 | KORMARC 통합서지용 | KERIS 입력지침 |
|--------------------------|--|--|
| | m - 전자자료 다음과 같은 전자정보에 속하는 자료의 레코드임을 나타낸다. 여기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게임, 폰트 포함), 수치데이터, 컴퓨터 의존형 멀티미디어, 온라인 시스템이나 서비스가 포함된다. 다른 종류의 전자정보는 해당 자료의 주 특성(예: 문자자료, 영사자료, 지도자료, 소리, 음악, 활동영상)에 따라 부호를 부여한다. 주 특성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전자자료로 적용한다. | m - 전자자료 전자매체자료가 리더/06에 m(전자자료)이 아닌 다른 부호가 적용된 경우 006 필드(부호화정보필드-부가적 자료특성)에 각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해당 자료의 전자자료적인 특성을 입력할 수 있으며[KERIS 권장사항], 자료의 물리적 특성을 기술하는 007 필드(형태기술필드)에는 앞 두 자리 이상을 필수로 입력하여야 한다 [KERIS 필수사항]. |
| 006(부호화정보필드 - 부가적 자료 특성) | 이 필드는 14자리(00-13)로 구성되며, 입력 대상자료가 다중의 특성을 가지거나 딸림자료가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한다. | 이 필드는 14자리(00-13)로 구성되며, 입력 대상자료가 다중의 특성을 가지거나 입력 대상 자료에 다른 형태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거나 딸림자료가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한다. |
| 007(형태기술필드) | [제량] | [필수] |
| 022(국제표준연속 간행물번호) | - | ISSN은 불입표(-)를 포함하여 'ISSN' 이라는 선행어구 없이 기술한다. 총서의 ISSN은 4XX, 8XX 필드에 기술한다. |
| 041(언어부호) | - | 1. 번역의 판단과 041(언어부호) 필드의 적용 2. 본문의 언어가 다수언어인 경우 기재순서 3. 008/35-37(언어부호) 필드와의 연계 4. ▼a(본문 언어/사운드트랙 언어)의 기술 |
| 082(듀이십진분류 기호) | - | 본표의 분류번호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일부 주제분야에서 자관 고유의 별도 전개표를 적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제번호를 082 필드가 아니라 085 필드에 기술한다. |
| 240(통일표제) | - | 기본표목(1XX 필드)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통일표제를 기술하고자 할 경우에는 730 필드에 기술한다. |
| 243(종합통일표제) | - | 한 레코드 내에서는 240 필드(통일표제)와 243 필드(종합통일표제)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
| 245(표제와 책임표시사항) | [제1지시기호] 2 - 관제를 포함해서 표제를 부출함 표제에 관계가 있고, 그 관제를 포함한 표제도 부출하는 경우 사용한다. | [제1지시기호] 2 - 관제를 포함해서 표제를 부출함 표제에 관계가 있고, 관제를 제외한 본표제와 관제를 포함한 표제를 부출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
| | ▼h - 자료유형표시 | KCR4에서는 자료유형표시를 본표제 다음에 기술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합서지용 KORMARC과 AACR2에서는 권차표제 다음에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본 지침에서는 통합서지용 KORMARC의 규정을 따른다. |
| 246(여러 형태의 표제) | ▼h - 자료유형표시 | 246(여러 형태의 표제) 필드에서는 식별기호 ▼h(자료유형 표시)를 사용하지 않는다. |
| 260(발행, 배포, 간사사항) | ▼b - 발행처, 배포처 등 | 발행처와 임프린트명이 모두 나와 있는 경우 ▼b를 반복하여 기술하되, 이 중 표제면에 있는 것을 우선하여 기재한다. |
| 300(형태사항) | - | 복합매체와 같이 구성하는 자료가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경우 이 필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 특정자료종별표시(SMD)의 유형 수록 |
| 440(총서사항/ 부출표목 - 표제) | - | 440 필드는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통합서지용 개정판(2014) 적용 시 사용하지 않는다 |
| 490(총서사항) | - | 총서의 편 번호를 총서표제의 일부로 취급하여 총서표제에 이어서 기술하며, 총서의 편표제는 식별기호 ▼a를 반복 사용하여 기술한다. |

| 구분 | KORMARC 통합서지용 | KERIS 입력지침 |
|--------------------|---|---|
| 500(일반주기) | - | ※ 자료유형별 다양한 입력 예시 수록 |
| 505(내용주기) | - | 각권의 표제나 내용을 505(내용주기) 필드에 기술하고 필요시 7XX 필드에 부출한다. |
| 508(제작진주기) | - | 내레이터는 511(연주자와 배역진 주기) 필드에 기술한다. 역할이 다른 제작진은 쌍반점 ':'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역할이 같은 제작진은 콤마 ','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
| 515(특수한 권차 표시 주기) | - | 특수한 권차표시에 관한 주기가 아닌 권호차와 연월차에 대한 주기는 500(일반주기) 필드에 기술한다. 영인본은 원본의 권호차와 연월차를 362(권·연차, 연월차 사항) 필드에 기술하고 영인본의 권호차와 연월차는 500 필드에 기술한다. |
| 525(부록주기) | - | 525(부록 주기) 필드는 주로 개별표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연속간행물의 부록이나 특별호에 적용한다. 단행본의 부록은 500(일반주기) 필드에 주기한다. |
| 538(시스템 사항에 관한 주기) | - | 전자자료의 경우에는 '시스템 조건과 같은 표출어를 사용하지만 비디오퓌화자료의 경우에는 표출어 없이 주기한다. DVD 자료의 경우 538(시스템 사항에 관한 주기) 필드에는 자료형태, 지역코드, TV 주사방식, 음향특성 등을 주기한다. |
| 544(기타 기록물의 소개 주기) | 기술된 자료와 관련 있는 기록물의 소장자와 주소를 출처(특히 동일 컬렉션이나 기록물 그룹(record group)의 일부였다는 이력이 나와 있는 출처)에 의거해 기술한다. | 기록자료의 전체나 일부를 소장한 적이 있거나 소장중인 개인 또는 기관의 이름과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

IV. KORMARC과 MARC21 형식 비교

KORMARC 통합서지용의 개정에 반영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KORMARC 통합서지용』(2014 개정)과 『MARC21 Format for Bibliographic Data』(Update No. 32 (June 2021))를 상호 비교하였다. 두 형식 간의 비교는 필드(표시기호), 식별기호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필드를 중심으로 두 형식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MARC21에는 있으나 KORMARC 통합서지용에 없는 필드는 총 33개로, MARC21에 비교적 최근에 신설된 필드(그룹① 18개), 특별히 북미에서의 사용을 위해 편성된 필드(그룹② 3개), 국내에서의 사용 용도가 낮아 그간 배제되어 왔던 필드(그룹③ 12개)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KORMARC 통합서지용에는 있으나 MARC21에 없는 필드는 총 13개 필드로 나타났다. 012, 023, 049, 056 필드는 KORMARC에서 국내 사용을 위해 확장 적용한 필드이며, 440 필드는 MARC21에서 2008년에 폐지하였고 KORMARC에서도 사용중지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행 KORMARC에 존치하는 필드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9XX 필드는 국내에서 로컬 필드로 KORMARC에 반영된 것이다. 이 가운데 MARC21에만 존재하는 필드는 세심한 검토를 거쳐 KORMARC 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별해야 할 것이다.

〈표 9〉 KORMARC 통합서지용과 MARC21 필드 비교

| MARC21에서만 적용 | KORMARC에서만 적용 |
|---|---|
| <p>[그룹①]</p> 031 (Musical Incipits Information) 251 (Version Information) 334 (Mode of Issuance) 335 (Extension Plan) 341 (Accessibility Content) 348 (Notated Music Characteristics) 353 (Supplementary Content Characteristics) 363 (Normalized Date and Sequential Designation) 370 (Associated Place) 385 (Audience Characteristics) 386 (Creator/Contributor Characteristics) 388 (Time Period of Creation) 532 (Accessibility Note) 647 (Subject Added Entry - Named Event) 688 (Subject Added Entry - Type of Entity Unspecified) 69X (Local Subject Access Fields) 751 (Added Entry - Geographic Name) 758 (Resource Identifier) | 012 (국립중앙도서관 제어번호) 023 (출판예정도서목록제어번호) 049 (소장사항) 056 (한국십진분류기호) 440 (총서사항/부출표목-표제) 900 (로컬표목 - 개인명) 910 (로컬표목 - 단체명) 911 (로컬표목 - 회의명) 930 (로컬표목 - 통일표제) 940 (로컬표목 - 표제) 949 (로컬표목 - 총서표제) 950 (로컬표목 - 가격) 980 (로컬표목 - 소장표시) |
| <p>[그룹②]</p> 025 (Overseas Acquisition Number) 061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Copy Statement) 071 (National Agricultural Library Copy Statement) | |
| <p>[그룹③]</p> 026 (Fingerprint Identifier) 038 (Record Content Licensor) 083 (Additional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Number) 085 (Synthesized Classification Number Components) 258 (Philatelic Issue Data) 365 (Trade Price) 366 (Trade Availability Information) 881 (Manifestation Statements) 882 (Replacement Record Information) 883 (Metadata Provenance) 884 (Description Conversion Information) 885 (Matching Information) | |

다음으로, 동일한 필드가 KORMARC과 MARC21에서 상이한 필드로 사용되는 경우는 다음 〈표 10〉과 같이 나타났다. 지리 분류기호에 해당하는 표시기호(KORMARC은 055 필드, MARC21은 052 필드)와 기타 분류기호에 해당하는 표시기호(KORMARC은 085 필드, MARC21은 084 필드)가 두 형식에서 상이한 표시기호를 가진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KORMARC과 MARC21 간의 데이터 공유나 교환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항목의 상이한 적용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0〉 표시기호 간의 차이

| | KORMARC | MARC21 |
|-----|--------------|-------------|
| 052 | 국립중앙도서관 청구기호 | 지리 분류기호 |
| 055 | 지리 분류기호 | 캐나다 청구기호 |
| 084 | - | 기타 분류기호 |
| 085 | 기타 분류기호 | 합성된 분류기호 요소 |

이어, 식별기호에서 발견되는 두 형식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KORMARC에 미정의된 식별기호는 다음 〈표 11〉과 같이 나타났다. 이외에도, KORMARC 통합서지용의 041(언어부호), 043(지역부호), 340(물리적 매체 유형), 345(영상자원의 영사 특성), 382(연주 매체), 540(이용과 복제 제한에 관한 주기) 필드를 포함하여 총 11개 필드에서 MARC21에 비해 식별기호가 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식별기호 간의 차이

| 식별기호 | MARC21 적용, KORMARC 미적용 필드 |
|----------------------------|--|
| ▼q (부가적 식별정보) | 015, 020, 024, 027, 028 필드 |
| ▼0 (전자레코드 제어번호 또는 표준번호) | 022, 050, 060, 070, 080, 085, 086, 257, 310, 321, 336, 337, 338, 377, 381, 384, 753 필드 |
| ▼1 (Real World Object URI) | 022, 033, 034, 043, 050, 060, 070, 080, 085, 086, 100, 110, 111, 130, 240, 257, 310, 321, 336, 337, 338, 340, 344, 345, 346, 347, 377, 380, 381, 382, 384, 518, 600, 610, 611, 630, 648, 650, 651, 653, 655, 656, 657, 658, 662, 700, 710, 711, 730, 753, 754, 800, 810, 811, 830 필드 |
| ▼2 (정보원) | 017, 043, 044, 100, 110, 111, 130, 240, 310, 321, 506, 520, 700, 710, 711, 730, 752, 753, 800, 810, 811, 830 필드 |
| ▼3 (자료 범위지정) | 037, 046, 250, 377, 380, 381, 382, 383, 384 필드 |
| ▼4 (관계) | 752 필드 |
| ▼5 (필드 적용 기관) | 037 필드 |

V. KORMARC의 주요 쟁점 사항

마지막으로,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KORMARC의 문제점으로 언급한 것이거나 KORMARC 적용 과정에서 혼돈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을 별도로 추출하여 검토하였다. 이 가운데, 이 연구에서 언급할 내용은 ① 245 필드의 표제 부출 및 배열을 위한 지시기호와 ② 자료의 내용과 매체에 관한 데이터 처리 등 두 가지이다.

먼저, 245 필드의 제1지시기호는 표제의 부출여부를 나타낸다. 현재의 KORMARC 적용지침에 따르면, 표제에 관계가 있고 관계가 본표제 앞에 원괄호에 기술하는 경우 KCR4와 같은 서지기술 단위방식에서 제1지시기호는 '0'과 '2' 중 선택하여 적용하고, 기본표목을 적용하는 저자 주기입방식

(AACR2, KCR2 등)에서는 '1'과 '2' 중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관제'가 있는 표제의 부출에 대한 적용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관제를 포함해서 표제를 부출'하는 경우는 있지만 '관제를 제외하고 표제를 부출', '관제를 포함하여 표제를 부출하지 않음'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다(이경호, 2014, 188-189). 또한, 서지기술단위방식에서 제1지시기호의 '2'에 대한 설명 중 '부출함'의 의미가 이론적으로 맞지 않으며, 제1지시기호의 '2'에 내포된 중의적 의미와 중복 기능의 문제도 존재하고 있다. 즉, "표제에 관제가 있고, 그 관제를 포함한 표제도 부출하는 경우"에서, '관제를 포함한 표제'를 부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표제'와 함께 '관제를 포함한 표제'를 각각 부출한다는 의미인지가 불분명하고, 후자의 "본표제와 함께 관제를 포함한 표제도 부출한다"고 할 때 이 두 가지 기능을 하나의 지시기호로 처리하는 것이 다소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제1지시기호의 기능과 부출의 대상을 분명하게 적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팀에서 검토하여 일차적으로 도출한 245 필드의 제1지시기호 개정(안)은 다음 <표 12>와 같이 두 가지이다. 제1안은 기존 내용을 유지하되 설명을 보완하는 것이며, 제2안은 기존의 '2'(관제를 포함하는 표제를 부출함)를 삭제하고 '표제를 부출함'과 '표제를 부출하지 않음'으로 기능을 단순화하면서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적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전문가 자문 및 실무진 의견 수렴을 거쳐 KORMARC 개정에 반영할 사항을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12> 245 필드의 제1지시기호 '표제 부출'에 대한 개정 검토안

| 제1안 | 제2안 |
|---|---|
| <p>제1지시기호- 표제의 부출</p> <p>표제의 부출여부를 나타낸다. 표제 부출은 본표제를 기준으로 하되, 표제에 관제가 있고 관제를 포함한 표제를 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를 적용한다.</p> <p>0 - 표제를 부출하지 않음</p> <p>표제 부출이 필요하지 않거나 부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서명기본기입방식의 목록규칙을 적용하는 경우에 '0'을 적용한다. 저자 주기입방식에서 1XX 필드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0'을 적용한다.</p> <p>1 - 표제를 부출함</p> <p>표제를 부출하는 경우 사용한다.</p> <p>2 - 관제를 포함하는 표제를 부출함</p> <p>서명기본기입방식의 목록규칙에서 관제를 포함한 표제를 기본 기입으로 삼을 경우 또는 저자 주기입방식에서 관제를 포함한 표제를 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관제가 있지만 관제를 제외하고 본표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이나 1을 적용한다.</p> | <p>제1지시기호- 표제의 부출</p> <p>표제의 부출여부를 나타낸다. 표제 부출은 본표제를 기준으로 한다. 표제에 관제가 있고 관제를 원괄호에 묶어 본표제 앞에 기술한 경우에는 관제를 포함한 표제를 부출의 대상으로 한다.</p> <p>0 - 표제를 부출하지 않음</p> <p>표제 부출이 필요하지 않거나 부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서명기본기입방식의 목록규칙을 적용하는 경우에 '0'을 적용한다. 저자 주기입방식에서 1XX 필드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0'을 적용한다.</p> <p>1 - 표제를 부출함</p> <p>표제를 부출하는 경우 사용한다.</p> <p>[2 - 삭제]</p> |
| <p><예시></p> <p>245 00 ▼a(새로 쓰는) 한국현대사 [접근점 : 한국현대사]</p> <p>245 20 ▼a(새로 쓰는) 한국현대사 [접근점 : 새로 쓰는 한국현대사] ※ '한국현대사'만 부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246 필드를 이용하여 추가 기술함</p> | <p><예시></p> <p>245 00 ▼a(새로 쓰는) 한국현대사 [접근점 : 새로 쓰는 한국현대사]</p> <p>246 10 ▼a한국현대사 ※ 245 필드와 다르게 부출되는 접근점은 이와 같이 246 필드에 추가 기술함</p> |

다음으로, 245 필드의 제2지시기호는 출력 형태(display)가 아니라 배열(filing)이나 정렬(sorting)에 관한 지시사항에 해당하므로 그 의미에 맞게 제2지시기호의 표출어 변경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관제 및 관사를 본표제 앞에 원괄호에 묶어 기술하는 경우 적용지침에 명시된 원괄호 제외의 의미가 원괄호만 제외하는 것인지, 원괄호와 함께 원괄호 내에 기술된 데이터 전체를 제외하는 것인지가 모호하여 실무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제2지시기호의 기능과 범위를 정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KORMARC에서 자료의 형태와 관련된 정보는 리더, 006-008 필드, 245 필드의 ▼h(자료 유형표시), 300 필드의 ▼a(특정자료종별과 수량) 등에 구분되어 기술된다(〈표 13〉 참조). 그러나 앞서 국립중앙도서관 목록지침에서도 나왔듯이, 전자자료의 경우 자료의 내용을 기준으로 할지, 매체 형태를 기준으로 해당 내용을 입력할지가 다소 모호한 상황이다. 가령, 디지털 오디오북이나 디지털 녹음파일에 대한 MARC21의 007/00(자료범주표시)와 007/01(특정자료종별) 적용 예시를 보면 cr(전자자료 - 원격)과 sr(녹음자료 - 원격)이 모두 적용되어 있다. 국가자료종합목록 등에서는 오디오북에 cr, 즉 매체를 우선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내용과 매체의 적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부가적인 설명을 KORMARC에 수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례에 대해 리더, 007, 008, 300 필드가 결합된 형태의 포괄적 예시를 KORMARC 통합서지용에 수록할 필요가 있다.

- 디스크나 카세트 등 물리적 매체에 수록된 음악 녹음자료
- 디스크나 카세트 등 물리적 매체에 수록된 음악 이외의 녹음자료
- 원격 접근하여 이용하는 전자 형태의 음악 녹음자료
- 원격 접근하여 이용하는 전자자료(전자책, 전자저널 등)
- DVD, 블루레이 디스크, VCD 등에 수록된 비디오 녹화자료
- 컴퓨터에 의해 구동되도록 만들어진 전자자료(전자 파일, 전자 프로그램 등)

〈표 13〉 자원의 내용적, 물리적 특성 기술

| 해당 위치 | 설명 |
|----------------|---|
| 리더/06(레코드 유형) | 자료의 형태를 부호로 입력 a - 문자자료 원본이 문자로 된 자료, 즉 마이크로자료, 전자자료 등에도 적용 m - 전자자료 자료의 주 특성(예: 문자자료, 영사자료, 지도자료, 소리, 음악, 활동 영상)에 해당하는 부호를 부여하고, 주 특성이 불명확할 경우 전자자료 적용 |
| 007/00(자료범주표시) | 자료의 물리적 특성을 부호로 입력 c - 전자자료 컴퓨터에 의해 사용되거나 처리되도록 만들어진 매체를 포함하는 자료 t - 문자자료 도서, 팜플렛, 인쇄물 등과 같이 인쇄되었거나 손으로 직접 쓴 것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자료 |

| 해당 위치 | 설명 |
|------------------------------|--|
| 007/01(특정자료종별) | 007/00에 입력한 자료의 특정 분류 007/00 전자자료 : 원적, 컴퓨터 광디스크 카트리지, 광디스크 등 007/00 녹음자료 : 원적, 음반, 녹음 카세트 등 |
| 008 자원형태 및 008/23(개별자료형태) | 도서(BK) : o(온라인 전자자료), s(전자자료) 등 전자자료(ER) : o(온라인 전자자료), q(직접 접근 전자자료) 등 음악/녹음자료(MU) : o(온라인 전자자료), q(직접 접근 전자자료) 등 |
| 245 필드의 ▼h(자료유형표시) | ▼h[전자자료] ▼h[녹음자료] 등 |

VI. KORMARC 통합서지용의 개정(안)

『KORMARC 통합서지용』에 대한 도서관 실무진의 의견과 KORMARC 적용을 위한 업무지침 분석, MARC21과의 비교 등을 종합하여 일차적으로 KORMARC 통합서지용의 개정 초안을 도출하였다. 이어, 개정 초안의 주요 내용을 발제한 후 ① 전문가 자문과 ②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과 실무진의 검토, ③ 공청회를 통한 도서관계의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공청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으나, 전문가 자문과 실무진 검토에서는 앞서 언급한 쟁점사항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개정 초안에 미반영된 새로운 예시에 대한 보완 요청 등이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확정된 개정(안)에는 MARC21의 새로운 필드 및 식별기호, 지시기호를 국내의 상황에 맞게 신설하는 것이 포함되었고, 현행 KORMARC에서 발견된 다양한 오류(식별기호 오류, 적용부호 오류, 구두점 오류, 띄어쓰기 오류, 예시 오류)의 수정과 용어 통일이나 변경(통합서지용과 전거통제용 용어 일치, 표시기호·식별기호·지시기호의 용어 일치 등)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설명과 예시 등 적용지침이 대대적으로 보완되었다. 주요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신설 및 삭제

먼저, 도서관 실무진의 요청과 MARC21 분석을 검토하여 수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필드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KORMARC 통합서지용』의 개정(안)에서 신설된 필드는 모두 24개였다(〈표 14〉참고). 신설에 포함된 필드는 주로 LRM 모형에 따른 개체 식별에 필요한 데이터(334, 335, 370, 385, 388, 758, 881 필드 등)나 데이터를 보다 구조화된 방식으로 입력하기 위해 확장 적용하는 필드(031, 341, 348, 353, 363 필드 등)였다. MARC21에 있는 025, 026, 038, 061, 071, 083, 084 필드 등은 국내에서의 적용가능성이 지극히 낮다고 판단되어 신설에서 제외되었다.

현행 KORMARC에 있는 필드 중 삭제된 필드는 023(출판예정도서목록제어번호) 필드와 440(총서사항/부출표목-표제) 등 2개였다. 023 필드는 2020년 12월 출판예정도서목록(CIP) 폐지에 따른 결정이었고, 440 필드는 2014년 개정부터 사용중지 상태였으므로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하였다.

〈표 14〉 KORMARC 통합서지용의 신규 필드 제안

| 신설 필드 | 신설 필요성 |
|-------------------------------|---|
| 031 음악 도입부 정보 | 음악 도입부에 대한 부호화된 데이터 기술 |
| 251 버전정보 | 발행 전 버전정보 (draft, preprint, author's original 등) 기술 |
| 334 간행단위 | 구현형의 간행 방식(single unit, multiple unit) 기술 |
| 335 확장계획 | 저작의 향후 확장계획과 그 계획의 확정여부 기술 |
| 341 내용 접근성 | 내용 접근방식(시각, 청각, 촉각 등)과 텍스트 보조도구(자막, 점자 등)에 대한 정보 기술 |
| 348 악보 특성 | 악보의 종류와 형식을 통제어휘나 부호로 입력 |
| 353 부록 특성 | 자원의 부록이 중요하게 간주되는 경우 부록 정보를 통제어휘나 부호로 입력 |
| 363 권.호차, 연월차부호 | 권.호차, 연월차 정보를 정형화된 방식으로 기술 |
| 365 판매 가격 | 상세한 가격 정보(화폐단위, 할인가, 적용단위 등) 기술 |
| 366 판매 정보 | 발행일, 발행상태, 판매예정일, 절판된 일자 등 기술 |
| 370 관련 장소 | 저작 및 표현형과 관련된 장소 |
| 385 이용대상자특성 | 자원이 의도하는 이용대상자집단이나 특성 기술 |
| 386 창작자/기여자 특성 | 창작자/기여자가 속한 집단의 범주 기술 |
| 388 창작 기간 | 저작 및 표현형의 생성이나 기원(origin) 기간 기술 |
| 532 접근성 주기 | 자료의 접근성에 대한 정보를 기술. 341(내용 접근성) 필드의 확장된 정보 |
| 647 주제명부출표목-사건 | 주제로서의 사건명을 기술. BIBFRAME의 사건(Event) 반영 |
| 688 주제명부출표목 - 구체화되지 않은 개체의 유형 | 주제명표목의 개체 유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적용 |
| 751 부출표목-지명 | 사건이 발생한 장소(회귀도서의 발행지, 논문이 제출된 대학교가 소재한 장소, 회의와 같은 사건 발생 장소 등) |
| 758 자원식별자 | 서지레코드에 기술된 자원 혹은 관련된 자원의 식별자 기술 |
| 881 구현형 서술 | 구현형에 관한 정보 기술 |
| 882 대체 레코드 정보 | 삭제 레코드에서 삭제 표제를 대체하는 표제 및 설명문 기술 |
| 883 메타데이터 출처 | 메타데이터 생성과 관련된 정보를 기술 |
| 884 변환 정보 | 다른 메타데이터 구조에서 MARC 레코드로 변환된 정보 기술 |
| 885 매칭 정보 | 두 레코드 간의 일치 여부 기술 |

한편, 각 필드 내에서 새로운 식별기호의 적용도 제안되었다. 복수의 필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식별기호의 신설 결과는 〈표 15〉와 같다. 동일한 식별기호가 상이한 명칭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식별기호의 명칭을 통일하고(예: ▼4 관계부호, 역할어부호 → 관계), 해당 식별기호를 적용해야 하는 필드에 식별기호를 각각 신설하였다.

〈표 15〉 공통 식별기호의 신설(안)

| 공통 식별기호 | 용도 | 적용된 필드 |
|---------------------------|--------------------------------------|---|
| ▼q(부가적 식별정보) | 표준번호 식별을 위한 정보 (권차, 장정 등) | 015, 020, 024, 027, 028 |
| ▼0(전자레코드 제어번호 또는 표준번호) | 관련 전자레코드의 제어번호나 ISNI 등 표준식별자의 URI | 022, 050, 052, 055, 060, 070, 080, 085, 086, 090, 257, 310, 321, 336, 337, 338, 377, 382, 384, 567, 753 |
| ▼1(Real World Object URI) | 실재 인물, 단체, 주제, 사물을 나타내는 URI | 022, 034, 043, 050, 052, 055, 060, 070, 080, 085, 086, 090, 100, 110, 111, 130, 240, 257, 310, 321, 336, 337, 338, 340, 344, 345, 346, 347, 377, 380, 381, 382, 384, 518, 567, 600, 610, 611, 630, 648, 650, 651, 654, 655, 656, 657, 662, 700, 710, 711, 730, 752, 753, 754, 800, 810, 811, 830 |
| ▼2(정보원) | 용어나 표목의 출처 | 017, 043, 044, 100, 110, 111, 130, 240, 310, 321, 506, 520, 540, 567, 700, 710, 711, 730, 753, 800, 810, 811, 830 |
| ▼3(자료 범위지정) | 해당 범위 제한 | 037, 043, 052, 090, 250, 377, 380, 381, 382, 383, 384 |
| ▼4(관계) | 필드에 기술하는 사항과 기술대상 자원과의 관계 | 730, 752, 830 |
| ▼5(필드 적용 기관) | 필드를 적용한 기관의 부호 | 037 |
| ▼6(대체문자 연결) | 서로 다른 문자로 표현된 필드 연결 | 056, 090 |
| ▼7(제어 식별기호) | 관련 자료의 특성 | 800, 810, 811, 830 |

〈표 15〉 이외에도, 데이터의 추가 기술을 위해 다음 필드에 새로운 식별기호가 신설되었다. 또한, 630(주제명부출표목-통일표제), 850(소장기관), 856(전자적 위치 및 접속) 필드에 있는 일부 식별기호의 삭제도 제안되었다.

- 041(언어부호) : 대상 언어를 세분화하여 부호화하기 위해 식별기호 확장
- 043(지역부호) : 지역구분 세분을 위해 식별기호 확장
- 044(발행/제작국명부호) : 지역 세분을 위해 식별기호 확장
- 046(특별한 연도부호) : 대상자원 추가를 위해 식별기호 확장
- 056(한국십진분류기호) : 분류규정 및 번호 부여기관 등의 기술을 위해 식별기호 확장
- 344(사운드특성) : 녹음 내용 추가를 위해 식별기호 확장
- 345(영사자원 특성) : 화면비율 추가를 위해 식별기호 확장
- 382(연주수단) : 악기, 독주자, 연구자 수 등의 기술을 위해 식별기호 확장
- 506(이용제한주기) : 용어제어 및 일자 등을 위해 식별기호 확장
- 540(이용 및 복제 제한에 관한 주기) : 권한 및 일자 등 추가를 위해 식별기호 확장
- 777(동시발간저록) : 보고서번호, 국제표준번호 등 추가를 위해 식별기호 확장

2. 변경

변경에 해당하는 개정 내용은 단순 명칭 변경에서부터 부호 변경, 지시기호의 추가나 내용 변경, 적용방식(반복, 반복여부) 변경 등 다양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 <표 16>과 같다.

<표 16>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변경내용 예시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명칭 변경 | 024 기타 표준부호 | 024 기타 표준식별자 |
| | 345 영상자원의 영사 특성 | 345 영상자원 특성 |
| | 100/600/700/800 ▼a 개인명(성과 이름) ▼n 책·권차, 편차 ▼o 편곡 ▼p 저작의 편제 ▼r 음악자료의 장·단조 | ▼a 개인명 ▼n 권차/편차 ▼o 음악 편곡 ▼p 권제/편제 ▼r 음악의 조성 |
| 부호 변경 | 007-지도자료/04(물리적 매체(재질)) e - 합성수지(플라스틱, 비닐) | e - 합성수지, i - 플라스틱, l - 비닐 |
| 지시기호 추가 | 046 특별한 연도 부호 제1지시기호 - 미정의 | 제1지시기호- 개체 유형 # - 해당정보없음 1 - 저작 2 - 표현형 3 - 구현형 |
| 지시기호 변경 | 740 부출표목-비통제 관련/분출 표제 제1지시기호-관제 및 관사 출력형태 0 그대로 인쇄 1 원괄호를 제외하고 인쇄 | 제1지시기호-표제의 배열 0 그대로 배열 1 원괄호를 제외하고 배열 |
| 적용방식 변경 | 110/610/710/810 ▼c 회의장소 [반복불가] | ▼c 회의장소 [반복] |
| | 240/243/246/247 ▼g 기타 정보 [반복불가] | ▼g 기타 정보 [반복] |
| | 250 관사항 [반복불가] | 250 관사항 [반복] |
| | 310 현재 간행빈도 [반복불가] | 310 현재 간행빈도 [반복] |

3. 적용지침의 조정

앞서 쟁점 사항에서 논의되었던 245 필드의 제1지시기호와 제2지시기호는 실무진의 의견 수렴과 조정을 거쳐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도출하였다. 개정(안)에서는 제1지시기호를 부출 지시의 용도로만 정리하되, 부출의 대상을 분명하게 적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표 12> 개정 검토안 중 제1안 채택). 또한, 관제의 처리는 제2지시기호의 ‘배열’에서 다루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더불어, 지시기호의 적용과 관련된 다양한 예시를 수록함으로써 적용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

였다.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 <표 17>과 같다.

<표 17> 245 필드 등의 제1지시기호와 제2지시기호의 적용지침 조정(안)

| 242, 245필드의 제1지시기호 | 242, 240, 242, 243, 245필드의 제2지시기호 |
|---|---|
| <p>제1지시기호- 표제의 부출 표제의 부출여부를 나타낸다. 표제 부출은 본표제를 기준으로 하되, 표제에 관계가 있고 관계를 포함한 표제를 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를 적용한다.</p> <p>0 - 표제를 부출하지않음 표제 부출이 필요하지 않거나 부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서명기본기입방식의 목록규칙을 적용하는 경우에 '0'을 적용한다. 저자 주기입방식에서 1XX 필드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0'을 적용한다.</p> <p>1 - 표제를 부출함 표제를 부출하는 경우 사용한다.</p> <p>2 - 관계를 포함하는 표제를 부출함 서명기본기입방식의 목록규칙에서 관계를 포함한 표제를 기본기입으로 삼을 경우 또는 저자 주기입방식에서 관계를 포함한 표제를 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관계가 있지만 관계를 포함한 표제가 아니라 본표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0이나 1을 적용한다.</p> | <p>제2지시기호- 표제의 배열 본표제의 시작에 관계 또는 로마자로 된 정관사나 부정관사(예: The, A, An, Le)와 같이 정렬이나 배열에서 제외하여야 할 문자가 있는 경우 이의 처리를 나타낸다.</p> <p>0 - 그대로 배열 본표제의 시작에 정렬이나 배열에서 제외하여야 할 문자가 없는 경우에 사용한다.</p> <p>1 - 원괄호를 제외하고 배열 본표제의 시작에 정렬이나 배열에서 제외하여야 할 문자가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관계 또는 로마자의 정관사나 부정관사와 같이 정렬이나 배열에서 제외하여야 할 문자는 원괄호에 묶어 기술하고, 정렬이나 배열에서 이를 제외한다.</p> |

또한, 730(부출표목-통일표제) 필드의 제2지시기호에 존재하던 중의적 의미('관계 및 관사 출력형태/부출표목의 유형')를 구분하여 제1지시기호와 제2지시기호로 분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2지시기호는 700, 710, 711 필드에 적용된 제2지시기호의 기능과 동일하게 '부출표목의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8> 730 필드의 지시기호 조정(안)

| 현행 | 개정(안) |
|--|---|
| 730 부출표목-통일표제 제1지시기호 - 미정의 제2지시기호 - 관계 및 관사 출력형태/부출표목의 유형 0 그대로 인쇄 1 원괄호를제외하고 인쇄 2 분출표목 | 제1지시기호 - 표제의 배열 0 - 그대로 배열 1 - 원괄호를 제외하고 배열 제2지시기호 - 부출표목의 유형 # 해당정보 없음 2 분출표목 |

마지막으로, 리더, 006-008, 300 필드 등 자료의 형태와 관련된 정보의 적용지침을 사례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특히, 007, 008 필드 등의 부호에서 해당 부호의 적용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예: “스트리밍 음악/비음악은 r(원격) 적용”), 300 필드의 입력 예시에 전체 항목이 결합된 형태를 제시하였다. 개정(안)에 제시된 예시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 | |
|--|---|
| 〈디스크나 카세트에 수록된 음악 이외의 녹음자료 (오디오북 포함)〉 | 〈원격 접근하여 이용하는 전자책〉 |
| 리더/06 = i (녹음자료(음악 이외)) | 리더/06 = a (문자자료) |
| 007/00 = s (녹음자료) | 006 [전자자료(ER)] |
| 007/01 = d (음반), s (녹음 카세트) 등 | ※ 해당 자원의 전자적 특성은 006 필드를 이용하여 부가할 수 있음 |
| 008 [음악/녹음자료(MU)] | 007/00 = c (전자자료) |
| 245 ▼h[녹음자료] | 007/01 = r (원격) |
| 300 ♪♫▼a녹음 카세트 1개 (50분) : ▼b아날로그, 모노 | 008 [도서(BK)] |
| | 245 ▼h[전자자료] |
| | 300 ♪♫▼a전자책 1책 |

Ⅶ. 결 론

『KORMARC 통합서지용』(2014)에 대한 개정(안)의 도출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KORMARC를 적용하면서 수정이나 보완을 요청해 온 실무진의 의견(2015년부터 2021년까지 국립중앙도서관에 접수된 의견 일체)과 편목업무에 참조하는 업무지침(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과 목록지침 및 KERIS 종합목록 입력지침)을 수집하여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개정된 MARC21와의 비교를 통해 KORMARC 개정에 반영할 사항을 추출하고,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기해온 문제점이나 그간 논의되어온 주요 쟁점 사항을 이번 개정에 담아내고자 하였다.

KORMARC 개정에 대한 실무진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1) 신설 및 추가, (2) 삭제, (3) 수정, (4) 재검토 요청 등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업무지침에서도 KORMARC 표준에 보다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할 사항이나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찾아낼 수 있었다. 또한, KORMARC과 MARC21의 필드, 식별기호, 지시기호를 매핑하고 적용지침을 자세히 비교함으로써 기존 형식에 포함된 오류나 해석상의 문제는 물론이고 새롭게 적용될 필요가 있는 사항도 발견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 및 별도의 의견을 통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추출한 쟁점 사항은 표제 필드의 부출과 배열에 관한 문제 그리고 자료의 형태를 기술하는 방법 등 두 가지였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 연구팀에서는 KORMARC 필드·식별기호·지시기호의 추가와 삭제, 적용지침과 예시의 보완, 부록 및 부속서(부호표)의 개정을 포함하는 개정 초안을 도출하고, 이후 전문가 의견 수렴과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과 실무진의 검토, 공청회를 통한 도서관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특히 주의 깊게 분석하고자 했던 것은 실무진이 제기한 문제점과 의견이었다.

여기에는 KORMARC 표준을 적용하면서 실무진이 직접 경험했던 어려움과 문제점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지난 5, 6년간 축적된 실무진의 의견을 일괄 수집하여 이번 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아쉬움이 남았던 것도 사실이다. MARC21의 운영 방식과 같이 실무진의 의견이나 제안을 공식적으로 접수하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고, 이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다면, 이번 연구에서 파악된 많은 부분, 특히 단순 오류나 보완 등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을 것이며, 특히 일회성의 단기간 조사연구에서 누락될 수 있는 한계 또한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의 결과가 KORMARC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나아가 도서관계의 표준화된 서지데이터 구축 및 공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국립중앙도서관 (2014).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통합서지용(2014 개정). 출처:
https://librarian.nl.go.kr/kormarc/kormarc_2014/index.html
- 국립중앙도서관 (2020. 10). 국가서지과 목록지침.
- 노지현, 이미화 (2014). 국제 목록 동향을 반영한 「KORMARC-전거통제용」 개정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5(1), 61-84. DOI: 10.14699/kbiblia.2014.25.1.061
- 노지현, 이은주 (2018). 국내 도서관의 소장정보 관리 현황과 소장정보용 KORMARC의 개정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4), 93-117. DOI: 10.16981/kliss.49.4.201812.93
- 이경호 (2009). KORMARC 245필드 입력형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MARC 21의 입력설계 원칙에 근거하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1), 181-207. DOI: 10.16981/kliss.40.1.200903.181
- 이경호 (2014). RDA에 바탕한 저작의 집중화 방안 연구: KORMARC의 24X필드 기술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1), 149-171. DOI: 10.16981/kliss.45.1.201403.149
- 이경호, 김정현 (2006). KORMARC 형식 통합서지용의 특성과 문제점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4), 201-223.
- 이미화 (2010). MARC 데이터의 RDA 저작 및 표현형 요소 분석을 통한 한국목록규칙 및 KORMARC의 고려사항.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2), 251-272. DOI: 10.16981/kliss.41.2.201006.251
- KERIS (2016). KERIS 종합목록 입력지침: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통합서지용 2014년 개정 반영. 출처: http://unicat.riss.kr/cmARC_guideline/main.jsp
- KERIS. 자료유형별 입력지침 요약 및 예시: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통합서지용 2014년 개정 반영. 출처: http://unicat.riss.kr/mattypNew_guideline/subIntro.jsp

Library of Congress (2021). MARC21 format for bibliographic data. Available:
<https://www.loc.gov/marc/bibliographic/>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KERIS (2016). KERIS Bibliographic Formats and Standards. Available:

http://unicat.riss.kr/cmARC_guideline/main.jsp

KERIS. Data Input Guidelines of KORMARC by Resource Type. Available:

http://unicat.riss.kr/mattypeNew_guideline/subIntro.jsp

Lee, Kyungho (2009).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245 field in KORMARC.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1), 181-207.

DOI: 10.16981/kliss.40.1.200903.181

Lee, Kyungho (2014). A study for grouping works in KORMARC database based on RD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1), 149-171.

DOI: 10.16981/kliss.45.1.201403.149

Lee, Kyungho & Kim, Jeonghyen (2006).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an integrated KORMARC bibliographic format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7(4), 201-223.

Lee, Mihwa (2010). A study on suggestion for KCR and KORMARC by analyzing work and expression element of RDA in MARC.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2), 251-272. DOI: 10.16981/kliss.41.2.201006.251

National Library of Korea (2020. 10). Cataloging Guidelines of National Bibliography Division.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4). Korean Machine Readable Cataloging Format: Integrated Format for Bibliographic Data. Available:

https://librarian.nl.go.kr/kormarc/kormarc_2014/index.html

Rho, Jee-Hyun & Lee, Eun Ju (2018). Current status of holdings data in Korean libraries and proposal for revision of KORMARC format for holdings dat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4), 93-117. DOI: 10.16981/kliss.49.4.201812.93

Rho, Jee-Hyun & Lee, Mihwa (2014). A study on the revision of KORMARC-Authority format by reflecting the international trends of authority control.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5(1), 61-84.

DOI: 10.14699/kbiblia.2014.25.1.061